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롱(Long)이란 단어는(‘길다’라는 뜻이 아니라)상승 시에 이익을 내는 투자방법, 즉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숏(Short)은(짧다는 뜻이 아니라)팔아서 이익을 내는 투자방법을 의미합니다



공매도와 지수선물, 옵션 등을 매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롱숏을 이용한 투자 전략들이 있지요.

뉴욕의 유명한 펀드매니저 A씨는 어느 날 B전자의 새 휴대폰을 써보고 주식이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만 원에 주식을 매수(롱) 하였고 동시에 C사의 신제품은 별로 매력이 없어 주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여 100만 원 하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숏)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들이 B전자만을 매수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예상과는 달리 글로벌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고 특히 B전자는 주식이 8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울상이었지만 A 매니저는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B전자가 20만 원 하락했지만 C사는 50만 원으로 반토막 났던 덕분이었습니다. C사를 100만 원에 공매도 했으므로 50만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B전자에서의 20만 원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30만 원의 순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투자방법이 주식을 싸게 사서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롱숏으로는 가격이 고평가된 주식까지 노릴 수 있어서 위의 예처럼 시장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수익달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롱숏은 좋은 투자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
공매도(空賣渡),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1]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혹은 하락시킬 타겟을 정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넘겨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봉아김선달**처럼 자기가 소유하지도 않은 주식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음수** **주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인 중간거래는 물건을 산 다음 파는 것인데, 공매도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물건을 우선 팔고 나중에 그것을 사서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즉, **매도 후 매수**다. 예를 들어서...

1. A라는 **주식**의 가격이 50만원인데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현금 2만원)
2. A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의 이자(-2만원)를 내고 **A 주식을 빌려서 판다**. (이때 현금이 50만원)
3. 이후 A 주식 가격이 40만원으로 하락했을때 **A 주식을 산다**. (이때 현금이 10만원 + A주식)
4. 그리고 **빌린 A주식을 갚는다**.
5.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10만원**이 되고 **이익은 +8만원**이 되는 것.

그러므로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따는 것이다. 공매도는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 무한대**이다.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신이 사다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공매도 했던 50만원 짜리 A주식이 7000만원이 되었고 이때 갚는다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6950만원이다.

~~지~~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바보가 있나 싶을텐데, 주식을 빌려주면 대주자(貸株者)는 그 대가로 0.1~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 내리니까 빌려달라고? 오를게 분명한데 먼소리야"라는 생각으로 빌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주식대여거래**라고 한다. 이 때, 주식을 빌려줘도 배당권은 주식을 빌려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반면,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준 도중에는 사라진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는 건 개인도 가능해서 각 증권사 **HTS**에선 개인들에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가면 빌려간 만큼의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보너스 수입원이 생기는 셈이지만, 최근에는 빌린놈들이 팔아재끼니까 내 주가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개인들의 공매도의 인식이 나빠져서 대차거래 설정을 끄는 경우도 많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BitMEX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